

VP-생략구문의 해석: 디폴트 상속 이론을 기반으로.

이해윤[†]
서울대학교

Hae-Yun Lee. 1999. The Interpretation of VP-ellipsis: based on the default-inheritance theory. *Language and Information* 3.1, 21–3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theory for the interpretation of VP-ellipsis. Al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proposals such as Sag (1976), Williams (1977), Darlymple et al.(1991), there remain many problem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pronouns. Assuming that a coordinate sentence forms a kind of discourse, we propose a theory which consists of two subparts, i. e. a revised HPSG for the syntactic treatment and a so-called ‘default-inheritance’ mechanism for the interpretation of elliptical parts. By means of this theory, we can explain various elliptical constructions of Fiengo and May (1994), in which pronouns are interpreted ambiguously within the elliptical conjuncts of coordinate sentences according to the related syntactic and the discourse structur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들어가기

생략현상들은 언어의 경제성 원리에 따라 구어체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으로서, 언어학내에서는 그간 다양한 유형의 생략구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유형들은 생략현상이 나타나는 구문들에 따라, 생략된 통사범주의 종류에 따라, 혹은 생략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구분되어 왔다. 연구대상에 따라 연구목표가 다르지만, 본 논문은 Lappin (1996)에 따라¹ 생략된 부분에 대한 해석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생략구문들 중에서 (1)에 제시된 등위적, 혹은 종속적 연결로 이루어진 접속문 내에서의 VP 통사범주 생략현상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해석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1) (a) John loves Mary, and Peter does, too.

(b) Gwendolyn hit a single after Sandy did.

(c) Maaike likes belly-dancing. She hates waltzing. Saskia does, too.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는 각기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에서의 VP 생략을 보여준다. 아래의 논의에서 선행어의 VP가 나타나는 문장을 ‘선행문’, 그리고 VP 범주가 생략된 문장을 ‘생략문’이라고 명명하며, 선행문과 생략문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생략 접속문’이라고 칭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생략된 범주에 따라 구체적으로 ‘VP-생략 접속문’이라 부르겠다. 위의 세 번째 예는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담화상에서의 VP 생략을 보여준다. 담화는 구체적인 접속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접속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 본 논문에서 함께 다루어 질 것이다.

[†]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의 1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E-mail: haeyun@plaza1.snu.ac.kr
1. “What are the procedures by which speakers of a language are able to systemically generate appropriate meanings for elided structures?”

이외에도 다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구문들에서 VP 범주의 생략을 관찰할 수 있으나, 구문유형에 따라 생략양상들이 달라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접속문 이외의 다른 구문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²

(2) (a) A: Did John leave?

B: Yes, he did.

(b) John talked to everyone that Peter did.

(c) John defended himself against the accusations better than his lawyer did.

(d) Betsy wanted to go home, but Peter didn't want to.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기존 연구들 중 Williams (1977), Darlymple et al.(1991) 비판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VP-생략 접속문에 대한 주요 연구점들이 들어갈 것이다. 다음 3절에서는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소위 ‘디폴트 상속 이론’이 제안되며, 이에 의거하여 4절에서는 다양한 VP-생략 접속문들이 분석된다. 특히 대명사의 중의적 해석과 관련하여 보다 명료한 분석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남은 문제들이 언급될 것이다.

2. 이전 연구들과 그 문제점들

생략문의 해석에 연구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현상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특히 다음의 예문에 대한 분석을 논의의 전개의 출발점이자 이론평가의 척도로 삼고 있다.

(3) Bill loves his wife, and John does too.

위의 예문에서 선행문 내의 VP 범주는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생략문 내에서 해석되는 대명사는 두 가지 해석을 받는다. 첫째로는 존이 빌의 부인을 사랑한다는 ‘엄밀한 해석’(strict reading)이 가능하며, 둘째로는 존이 자기자신의 부인을 사랑한다는 ‘느슨한 해석’(sloppy reading)을 받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생략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제공한 Williams (1977)의 이론과, 최근 제시되어 많이 응용되어 온 Darlymple et al.(1991)의 이론이 이러한 대명사의 중의적 해석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³

2.1 Williams (1997)

Williams (1977)은 생략된 VP의 해석을 위하여 변형이론들 내에서 단계적 층위와 절차를 가정하고 있다. 먼저 표층구조 (SS)에서 생략문 내의 VP범주에 공범주가 가정되고, 다음으로 의미형태 (LF)층위에서 선행문에 대한 재구성이 일어난다. 이때 통사적 범주 VP를 의미론적 개체로 변환시켜주는 소위 ‘도출된 VP 규칙’(Derived VP rule)과, 대명사가 존재할 경우 이를 -연산자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으로 변환시켜주는 수의적인 ‘대명사 규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생략된 VP의 해석을 위하여 담화층위에서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VP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4) VP 규칙: 선행어 VP를 생략된 VP자리에 복사하라!

2. (2a)는 질의-응답구문에서, (b)는 관계문에서, (c)는 비교문에서, 그리고 (d)는 to의 보족어 구문에 나타나는 VP 생략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3. 이 두 연구이외에도 많은 연구들 (Sag (1976); Asher (1993); Fiengo and May (1994) etc.)이 있으나 한정된 지면에서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러한 그의 이론을 앞의 예 (3)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5) (a) Bill [$\lambda x (x \text{ loves his wife})$] and John does_ too.
 (b) Bill [$\lambda x (x \text{ loves } x\text{'s wife})$] and John does _ too.
 (b') Bill [$\lambda x (x \text{ loves his wife})$] and John does _ too.
 (c) Bill [$\lambda x (x \text{ loves } x\text{'s wife})$] and John does [$\lambda x (x \text{ loves } x\text{'s wife})$] too.
 (c') Bill [$\lambda x (x \text{ loves his wife})$] and John does [$\lambda x (x \text{ loves his wife})$] too.

먼저 (5a)는 논리형태 층위에서 ‘도출된 VP 규칙’의 적용으로 VP 범주가 의미변역인 속성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속성은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명사 규칙’을 수의적으로 받을 수 있다. (5)(b)는 그 규칙의 적용으로 대명사가 변항 x 로 표현된 경우이고, 이에 반해 (5)(b')은 규칙적용을 받지 않아 대명사가 빌을 지시하고 있는 표현이다. 다음의 (5c)(5c')은 담화층위상의 ‘VP 규칙’이 적용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 규칙에 따라 논리표현 (b)는 (c)로, (b')은 (c')으로 각각 변화되어, 전자는 느슨한 해석을, 그리고 후자는 엄밀한 해석을 최종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Williams (1977)의 이론은 대명사의 중의적 해석을 무리 없이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첫 번째로 그는 선행문 자체에 VP의 중의적 해석을 설정함으로써 생략문에서의 대명사 해석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행문 단독으로는 VP 범주의 중의적 해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략문과 같은 문맥의 첨가가 그 중의적 해석에 관여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양화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의 이론에 따르면 VP 범주내의 양화구는 주어위치의 양화구에 비해 항상 좁은 영역을 지녀야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례들이 또한 제시되어 왔다.⁴

2.2 Darlymple et al. (1991)

소위 ‘고차 통합’(Higher Order Unification)이라는 논리에 기초를 한 Darlymple et al.(1991)이론은 그간 생략구문뿐만 아니라 초점구문, 비교문 등의 다양한 구문들의 설명에 응용되어 왔다. 앞의 Williams (1977)과는 달리, 생략문에서 나타나는 대명사의 중의성은 해석과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6) (a) $P(s_1, s_2, \dots, s_n) = s$
 s_i := 선행문 내에 존재하는 평행한 요소들의 해석
 s := 선행문 자체의 해석
 (b) $P(t_1, t_2, \dots, t_n) :=$ 생략문의 해석
 t_i := 생략문 내에 존재하는 평행한 요소들의 해석

VP-생략 접속문을 다루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이 이론은 선행문과 생략 문간의 평행한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전제된 평행한 구조에 근거 하여 설정되는 (6a)의 등식으로부터 선행문의 VP 범주 의미해석에 해당 하는 어떤 관계 P 를 이끌어 낸다. 다음 단계에서는,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도된 관계 P 를 생략문에 적용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런 체계를 갖는 이론이 구체적으로 예문 (3)의 중의적 해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3)에 제시된 체계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석 단계를 볼 수 있다.

4.

- (i) At least one Labour MP attended every committee meeting, and Bill did too.
 (ii) Every woman likes a man, and every girl does too.

(7) (a) 선행문의 의미 : $\text{love}(\text{bill}, \text{wife_of}(\text{bill}))$

(b) 등식 : $P(\text{bill}) = \text{love}(\text{bill}, \text{wife_of}(\text{bill}))$

(c) 해답 : $P \rightarrow \lambda x \text{love}(\text{bill}, \text{wife_of}(\text{bill}))$

$P \rightarrow \lambda x \text{love}(\text{bill}, \text{wife_of}(x))$

$P \rightarrow \lambda x \text{love}(x, \text{wife_of}(\text{bill}))$

$P \rightarrow \lambda x \text{love}(x, \text{wife_of}(x))$

(d) 의미 : $\text{love}(\text{bill}, \text{wife_of}(\text{bill})) \wedge \text{love}(\text{john}, \text{wife_of}(\text{bill}))$
 $\text{love}(\text{bill}, \text{wife_of}(\text{bill})) \wedge \text{love}(\text{john}, \text{wife_of}(\text{john}))$

먼저 (a)의 표현은 선행문과 생략문간의 평행성에 기반하여 유도된 선행문의 의미에 대한 술어논리 표현이다. 이 표현에서 밑줄로 표시된 의미표현은 평행한 요소를 의미한다. 선행문의 의미해석과 확인된 평행한 요소를 이용하여, 우리는 (b)와 같은 등식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등식으로부터 우리는 (c)에서 제시된 네 개의 P값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론 내적으로 설정된 소위 ‘일차 출현 제약’(Primary Occurrence Restriction)으로 인해, 선행문의 평행한 요소를 내포하는 값들을 배제하면 최종적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값을 올바른 P의 값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P값을 각각 생략문의 의미표현에 적용을 하면, (d)와 같이 엄밀한 해석과 느슨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

이 이론은 그 논리적 성격으로 인하여 다양한 언어현상을 형식적이고도 분명하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이 이론의 전제, 즉 선행문과 생략문간의 평행성은 단지 전제되어야 할 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서 계산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큰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Prüst (1994). 그 밖에도, 대명사들이 선행문 내에 상이한 정도로 내포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덜 내포된 대명사가 먼저 추상화된다는 현상에 대하여 위의 이론은 통사적 영역인 내포정도를 기술할 구체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한다 (Fiengo and May (1994)).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이 이론은 너무 강한 면을 다음의 예는 보여준다.

(8) (a) Maaike dances. She sings. Saskia does too.

(b) $P \rightarrow \lambda x \text{sing}(x) \Rightarrow \text{Saskia sings.}$

$P \rightarrow \lambda x \text{dance}(x) \ \& \ \text{sing}(x) \Rightarrow \text{Saskia dances and s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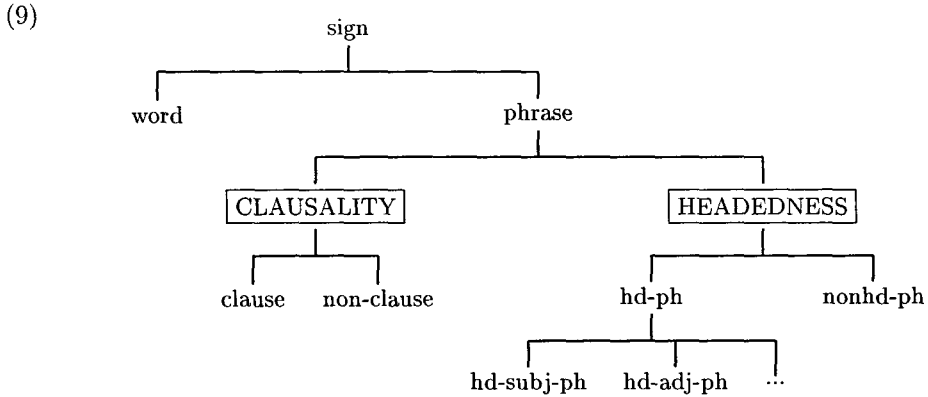
$P \rightarrow \lambda x \text{dance}(x) \ \& \ \text{sing}(\text{maaike}) \Rightarrow \# \text{Saskia dances and Maaike sings.}$

예문 (a)에서 생략문은 사스키아가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은 (b)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관계 P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값으로 배정되었을 때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관계 P는 세 번째 값을 허용하지만 이 값에 의한 생략문의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위의 이론은 허용되지 않는 해석을 유도하는 P의 값을 배제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3. 디폴트 상속 이론

본 이론은 생략 접속문의 분석을 위하여 두 단계층위에서의 작업분할을 가정하고 있다. 먼저 통사층위에서는 ‘핵심어주도 구구조분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내에서 각각의 등접절에 대한 통사적 분석이 행해진다. 생략 접속문의 경우, 우리는 이 층위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선행문에 해당하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정보구조와 생략문에 해당하는 단편적 문장정보구조들을 얻게 된다. 다음의 담화층위에서는 앞서 통사적 분석에서 얻게 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생략문의 정보 재구성을 통한 완전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본 절에서 살펴보게 될 ‘디폴트 상속’ 이론이 적용되어 생략 접속문의 해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통사적 층위에서의 분석을 살펴보자.⁵ 선행문과 생략문간의 상이한 자질구조 배당을 위하여 우리는 Sag (1997)에 의거하여 유형들간의 다음 위계를 가정하기로 한다.



즉 *phrase* 유형은 두 차원, 즉 *clausality*와 *headedness*에 따라 각기 위계적으로 하위 분류되며, 임의의 어휘적 표현은 각 차원에 속하는 유형들의 결합으로 그 정보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위의 위계에서 가정된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그 자질구조가 선언되는 것으로 본다.

- (10) (a) $clause := \left[\begin{array}{l} LOC | CAT \quad \left[\begin{array}{l} HEAD \quad verb [FORM \quad fin | imp] \\ VAL \quad \langle \rangle \end{array} \right] \\ NONLOC | SLASH \quad \{ \} \end{array} \right]$
- (b) $nonclause := \left[NONLOC | SLASH \quad \{ synsem, \dots \} \right]$
- (c) $hd - ph := \left[DTRS \quad \left[HD-DTR \quad sign \right] \right]$
- (d) $nonhd - ph := \left[DTRS \quad \left[NHD-DTRS \quad \langle sign, \dots \rangle \right] \right]$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형들의 확장, 위계적 배열, 그리고 그들간의 결합가능성으로 인하여 선행문에 $clause \wedge hd-ph$ 유형을, 그리고 생략문에 $nonclause \wedge \dots$ 유형을 배당함으로써 두 문장의 정보를 자질구조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통사구조 파악을 위하여 Pollard and Sag (1994)에서는 *constituent-struct* 유형에 대하여 두 종류의 유형, 즉 *headed-struct*와 *coord-struct*를 가정하고 있다. 정의된 각 자질구조를 이용하여 우리는 대등접속사 혹은 종속접속사에 의한 VP-생략 접속문의 통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상이한 자질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11) (a) John loves Mary, and Peter does too.

- (b) $\left[DTRS \quad \left[\begin{array}{l} CONJ-DTRS \quad \left\{ \begin{array}{l} clause \wedge hd - ph, \\ nonclause \wedge hd - subj - ph \end{array} \right\} \\ CONJUNCTION-DTR \quad word \end{array} \right] \right]$

5. 본 논문은 Pollard and Sag (1994)HPSG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문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12) (a) Gwendolyn hit a single after Sandy did.

$$(b) \left[\begin{array}{l} \text{DTRS} \left[\begin{array}{l} \text{HEAD-DTRS} \quad \text{clause} \wedge \text{hd-ph} \\ \text{ADJ-DTRS} \quad \{ \text{nonclause} \wedge \text{hd} - \text{subj} - \text{ph} \}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대등적 관계에 의한 생략 접속문 (12)은 *clause*와 *nonclause* 유형들의 집합을 값으로 갖는 CONJ-DTRS와, 특정 단어로 실현되는 CONJUNCTION-DTR로 구성된 *coord-struct* 유형을 구조로 갖는다. 반면에 종속적 관계에 의한 생략 접속문 (12)은 HEAD-DTR 값으로 *clause* 유형의 선행문을, 그리고 ADJ-DTR 값으로 *nonclause* 유형의 생략문을 갖는 전형적인 *headed-struct* 유형의 구조를 보인다. 이상으로 우리는 통사층위에서 Sag (1997)의 유형 위계를 이용하여 선행문과 생략문에 대하여 상이한 자질구조를 구성함으로써, 두 등접절간의 통사적 차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

다음은 담화층위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담화상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언어적 표현들은 그 통사적 성격에 관계없이 명제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명사단독에 의한 단편적 표현들이나 불완전한 문장들은 담화층위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재구성되어 인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략 접속문과 관련하여 보면, 통사층위에서 구성된 생략문의 자질구조는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완전한 문장으로서 해석되지 못한다. 문장에 부합하는 자질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여된 정보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심리언어학의 ‘자기수정’(self repairing)에 관한 한 연구인 Levelt (1983)에서는 생략접속문과 자기수정 구문간의 유사한 구조를 포착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자기수정 구문이 처리되는 방식인 일종의 정보전이 과정으로 생략 접속문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의 ‘지식표상’(Knowledge Representation)에서 제안된 프레임 시스템이 생략접속문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Lee (1999)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즉 각 등접절이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각각의 등접절은 선행절을 상위단위로 하여 위계적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계적 구조 가정하에 생략문의 의미해석은 일종의 문제 해결절차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보전이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인, 지식표상에서 문제 해결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디폴트 상속’(default inheritance) 개념의 응용가능성을 보게 된다.

디폴트 상속이론은 관련 단위들간의 위계적 구조와, 그들간의 어떤 연산 장치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생략 접속문과 관련하여, 선행절이 -구체적으로는 선행절이 표현하는 자질구조가- 상위단위를 그리고 생략문들이 그 하위단위들을 이루는 단순한 위계구조를 가정한다. 그리고 자질구조들간에 작용하는 연산장치로서는 Carpenter (1993)에서 제시된 소위 ‘회의적 디폴트 통합’(skeptical default unification,⁶ \sqcup_s) 알고리즘을 이용하기로 한다. 회의적 디폴트 통합 연산 (13a)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신뢰적 디폴트 통합’(credulous default unification,⁶ \sqcup_c) 개념 (13b)에 기초하여 정의된다.⁶

$$(13) (a) S > \sqcup_s T = \cap (S > \sqcup_c T)$$

$$(b) S > \sqcup_c T = \{ S \sqcup T' \parallel S \sqcup T' \text{이 정의되고, } T' \sqsubseteq T \text{이 최대값이다.} \}$$

Carpenter의 (회의적) 디폴트-통합 개념은 자질구조내의 구조공유(structure sharing)와 같은 복잡한 현상의 파악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본 이론에서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두 가지 적용모습을 보게 된다.

6. (13)에 제시된 정의에서는 Carpenter (1993)과는 달리 소스 자질구조가 디폴트 통합 연산자의 왼편에, 목표 자질구조가 오른편에 위치한다. 이는 생략 접속문의 표층구조를 고려한 것으로서, 소스 자질구조는 선행문에 목표 자질구조는 생략문에 각기 대응된다.

$$(14) (a) \begin{bmatrix} F & a \\ G & b \\ H & c \end{bmatrix} > \sqcup_s \begin{bmatrix} H & d \end{bmatrix} = \begin{bmatrix} F & a \\ G & b \\ H & d \end{bmatrix}$$

$$(b) \begin{bmatrix} F & \begin{bmatrix} H & a \\ J & b \end{bmatrix} \\ G & d \end{bmatrix} > \sqcup_s \begin{bmatrix} F & \begin{bmatrix} H & c \end{bmatrix} \end{bmatrix} = \begin{bmatrix} F & \begin{bmatrix} H & c \\ J & b \end{bmatrix} \\ G & d \end{bmatrix}$$

첫 번째 예 (14a)는 디폴트-통합의 단순한 적용을 보여준다. 즉, 소스 자질구조 내에 존재 하지만 목표 자질구조 내에 없는 정보들 [F a, G b]가 후자에 보충되고, 목표 자질구조에 명시된 정보 [H d]는 소스 자질구조내의 정보 [H c]보다 우선하여, 결과적으로 [F a, G b, H d]를 얻는다. 한편 (14b)는 내포된 자질구조를 값으로 갖는 자질구조들간의 디폴트-통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디폴트-통합 연산장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생략 접속문의 해석원리를 설정할 수 있다.

- (15) 생략 접속문의 해석원리
*clause*와 *nonclause* 유형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constituent-struct* 유형에서, *nonclause* 유형의 DTRS 값을 다음 연산 결과로 대치하라:

$$clause \left[\text{DTRS } \textit{const-struct} \right] > \sqcup_s nonclause \left[\text{DTRS } \textit{const-struct} \right]$$

위의 해석원리에서 디폴트-통합 연산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각 등접절의 전체 자질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DTRS 값들이다. 이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식별은 자질구조가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도 통사구조를 반영하는 DTRS 값들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해석원리는 VP-생략접속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략 접속문에 적용되는 일반원리로서 작용한다. 다음절에서는 이러한 디폴트 상속 이론을 이용하여 VP-생략 접속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VP-생략구문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VP-생략문은 통사적 분석에서 *clause* 유형의 선행문에 비해 *nonclause* 유형의 자질구조를 지닌다. 그러므로 (10)에 정의된 바에 따라 VP-생략문은 S/VP 범주를 갖는, 즉 SLASH 범주로서 VP 범주가 나타나는 불완전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LASH 범주란 공범주로 실현되는 각 문법범주들에 해당하며, VP 범주가 다시 V와 그의 논항범주들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SLASH 범주로서 V와 다른 범주들의 집합을 가정할 수도 있다. SLASH 범주에 대한 이러한 두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는 VP-생략문에 대해서도 단순히 VP-범주의 생략으로, 혹은 V와 그에 따른 논항범주들의 생략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음의 두 소절에서는 주로 대등적 관계를 보이는 VP-생략 접속문에 대한 두 종류의 분석방식을 각각 제시하고, 마지막 소절에서는 두 방식의 조합에 의한 대명사의 중의적 해석을 설명하고자 한다.

4.1 전체적 디폴트 상속

‘전체적 디폴트 상속’이란 생략문의 SLASH 범주가 하나의 범주로 실현되는 통사적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디폴트 상속을 의미한다. 즉, VP-생략 접속문에서 선행문-생략문 순의 위계적 구조가 가정하에 디폴트-통합 연산이 이루어질 경우, 선행문의 VP에 해당하는 정보가 생략문 내에 보충된다. 따라서 해석원리 (15)에 의거하여, 생략문은 다음의 디폴트 통합 연산을 통하여 완전한 문장에 해당하는 자질구조를 갖게 된다.

$$(16) \quad \text{clause} \begin{bmatrix} \alpha\text{-DTR} & [1] \\ \beta\text{-DTR} & [2]\text{VP} \end{bmatrix} > \sqcup_s \text{nonclause} \wedge \text{hd--subj-ph} \begin{bmatrix} \alpha\text{-DTR} & [3] \end{bmatrix}$$

$$= \begin{bmatrix} \alpha\text{-DTR} & [3] \\ \beta\text{-DTR} & [2]\text{VP} \end{bmatrix}$$

즉 *nonclause* \wedge *hd-subj-phrase* 유형을 갖는 VP-생략문은 디폴트-통합에 의하여 부족한 VP 범주를 선행문으로부터 보충 받는다. 다음의 예를 보자.

(17) (a) Dan likes golf, and George does too.

$$(b) \begin{bmatrix} \text{PHON} & \langle \text{dan, likes, golf} \rangle \\ \text{SYNSEM} & \text{S}[\text{fin}] \\ \text{DTRS} & \begin{bmatrix} \text{HD-DTR} & \begin{bmatrix} \text{SYNSEM} & \text{VP}[\text{fin}] \\ \text{HD-DTR} & \begin{bmatrix} \text{CAT} & \text{verb}[\text{fin}] \\ \text{CONT} & \text{like}(x,y) \end{bmatrix} \\ \text{COMP-DTRS} & \langle \text{NP}_y \rangle \end{bmatrix} \\ \text{SUBJ-DTR} & \langle \text{NP}_x \rangle \end{bmatrix} \end{bmatrix}$$

예문 (17a)의 선행문에 대하여 (b)와 같은 자질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자질구조 (17b)에서 보면, HD-DTR내의 HD-DTR와 COMP-DTRS가 바로 해석원리 (15)의 적용으로 생략문 내에 상속되게 된다.⁷

다음은 이러한 전체적 디폴트 상속이 대명사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살펴보겠다. 먼저 전체적 디폴트 상속은 선행문에서의 대명사 지시체를 변화 없이 그대로 생략문에 실현시키는 효과를 지닌다고 가정하겠다. 즉 VP 범주가 전체적 디폴트 상속에 관련된 경우, VP 내에 나타나는 대명사 혹은 변항은 이미 확정된 지시체를 갖고서 상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정을 이용하면, 우리는 Sag (1976)에서 제시된 다음의 소위 ‘선행어 포함 생략현상’(Antecedent Contained Deletion)을 설명할 수 있다.

(18) (a) Betsy's father wants her to read everything her boss wants her to read.

(b) Betsy's father wants her to read everything her boss does

(19) (a) $\forall x$ [Betsy's boss wants (Betsy read x) \rightarrow Betsy's father wants (Betsy read x)]

(b) Betsy's father wants [$\forall x$ [Betsy's boss wants (Betsy read x) \rightarrow Betsy read x]]

Sag에 따르면, 예문 (18a)는 (19a)의 *de re* 해석과 (19)(b)의 *de dicto* 해석이 가능한 반면, 일반적으로 VP 생략을 가정하고 있는 선행어 포함 생략문인 (18b)는 단지 (19a)의 *de re* 해석, 즉 양화구 *everything*의 의미와 관련되는 변항 x의 존재가 전제되는 해석만이 가능하

7. 이에 대한 HPSG내에서의 자세한 처리과정은 Lee (1999)를 참조.

다. 이러한 선행어 포함 생략문의 해석은 VP 내의 변항이 특정한 값에 고정된 상태에서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양화구나 대명사는 의미번역에 있어서 일종의 변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함으로 전체적 디폴트 상속에 대한 우리의 가정, 즉 내포된 대명사는 그 지시체가 고정된 상태로 상속된다는 가정은 선행어 포함 생략문의 의미를 잘 포착해 주고 있다. 대명사에 대해 이러한 해석을 부여하는 전체적 디폴트 상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앞선 전형적인 예문 (3)에 대해서 엄밀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 (a) Bill loves his wife, and [_S/VP John does [_{VP} e] too].

(b) Bill¹ loves his₁ wife, and [_S John does [_{VP} love his₁ wife] too].

즉 (20a)를 예문 (3)에 대한 통사구조로 본다면, 해석원리 (15)에 의해 선행문의 VP범주가 디폴트 상속되어 (20b)와 같은 구조를 담화층위에서 상정할 수 있다. 후자의 구조는 빌을 지시하는 대명사 *his*의 의미가 생략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엄밀한 해석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4.2 분석적 디폴트 상속

앞 소절에서 살펴본 전체적 디폴트 상속과는 달리, ‘분석적 디폴트 상속’은 생략문 내에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그 범주의 하위범주들이 각각 공범주로 실현된 통사구조의 전체하에 그 하위범주들의 개별적인 디폴트 상속을 의미한다. 즉 S/{V, XP, ...}의 범주가 배당되는 VP-생략 접속문에서 분석적 디폴트 상속은 필수적으로 V 범주와 그 외 다른 범주들의 상속과 관련되어 있으며, VP 범주가 V와 NP로 구성될 경우 해석원리 (15)에 따라 다음과 같은 디폴트 통합 연산이 이루어진다.

$$(21) \quad \text{clause} \begin{bmatrix} \alpha\text{-DTR} [1] \\ \beta\text{-DTR} [2]V \\ \gamma\text{-DTR} [3]NP \end{bmatrix} > \sqcup_s \text{nonclause}^{\wedge hd-subj-ph} \begin{bmatrix} \alpha\text{-DTR} [4] \\ \beta\text{-DTR} [2]V \\ \gamma\text{-DTR} [3]NP \end{bmatrix} = \begin{bmatrix} \alpha\text{-DTR} [4] \\ \beta\text{-DTR} [2]V \\ \gamma\text{-DTR} [3]NP \end{bmatrix}$$

전체적 디폴트 상속과는 달리, 분석적 디폴트 상속에서는 대명사의 지시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상속된다고 가정하겠다. 분석적 디폴트 상속은 개별 범주들의 상속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NP 범주의 디폴트 상속은 대명사와 관련하여 고정되지 않은 지시체를 상속하는 결과를 갖는다. 담화 표상이론이나 서류철 변동 의미론 등의 담화이론에서 명사구의 표현은 담화 지시체로 파악되어 왔다. 이러한 담화 지시체는 특정한 술어와 결합하여 어떤 시공간 내에서의 명제 혹은 사태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담화 지시체라 할지라도, 결합하는 술어가 달라지면 그 담화 지시체의 성격이 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다양한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22) (a) John bought the book and _ was shocked by it.

(b) Uli kommt in Köln an und _ begrüßt mich am Flughafen.

“Uli arrives in Köln and greets me at the airport.”

위의 예문들에서 동일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의미역에 관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2a)의 능동문/수동문의 연결이나, 독일어 예문 (22b)의 능격구문/타동구문의 연결에서는 동일한 명사구가 각기 상이한 의미역을 담당받고 있다. 이외에도 다음 예들에서 변항으로 해석되는 일련의 명사구들은 그 변항을 묶어주는 연산자를 각각의 문장 내에서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3) (a) *Sich im Spiegel betrachtet hat Heinz selten und _ hat Karl hufig.*

“Heinz has seldom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and Karl has often.”

(b) *Seinen Hund hat jede selber gestreichelt und _ hat kaum einer schlecht behandelt.*

“Each has stroked his dog, and nobody has treated badly.”

예문 (23a)에서 재귀대명사 *sich*의 선행어는 최소지배범주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결속조건에 의하여 선행절의 *sich*는 *Heinz*와, 생략절의 상속된 *sich*는 *Karl*과 공지시를 갖는 해석을 얻는다. 또한 예문 (23b)는 변항을 결속하는 연산자는 문장의 영역밖에 위치할 수 없다는 일반 원리에 따라 대명사 *seinen*은 각각의 문장 내에서 상이한 양화구에 의해, 즉 *jede*와 *einer*에 의해 결속됨을 보여준다. 이상의 관찰은 우리의 가정, 즉 분석적 디폴트 상속을 받는 대명사는 각각의 문장 내에서 그 지시체가 결정된다는 가정에 타당성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가정은 예문 (3)에 대하여 느슨한 해석을 유도하게 된다.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체적 디폴트 상속에 의한 분석인 (20)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단계를 제시할 수 있다.

(24) (a) *Bill loves his wife, and [S/{V, NP} John does [V e][NP e] too].*

(b) *Bill¹ loves his₁ wife, and [S John² does [V love][NP his₂ wife] too].*

즉 (24a)의 통사적 구조는 V-, 그리고 NP-디폴트 상속을 야기하며, 그 결과 (24b)와 같은 구조를 담화층위에서 얻어, 결론적으로 생략문 내에서 대명사 *his*의 선행어는 생략문 내에 존재하는 *John*이 되는 느슨한 해석을 얻게 된다.

종합하면, VP-생략 접속문의 해석을 위한 해석원리 (15)는 선행어 VP의 구조적 특성상 VP 범주의 상속이라는 전체적 디폴트 상속과, V와 다른 수의적 범주들의 상속이라는 분석적 디폴트 상속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대명사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자의 방식은 엄밀한 해석을, 그리고 후자의 방식은 NP 범주의 디폴트 상속으로 인하여 느슨한 해석을 유발한다.

4.3 대명사의 해석

결속이론에 따르면, 대응어로 사용되는 대명사는 특정한 통사적 환경 밖에서 그 선행어를 찾아야 한다. 선행문의 목적어 내에 나타나는 대명사가 주어 선행어로 갖는 예문 (3)에서, 우리는 생략문에서 해석될 대명사는 선행문 내의 주어와 혹은 생략문 내의 주어와 공지표를 지닐 수 있음을 각각 전체적, 그리고 분석적 디폴트 상속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선행문 내에 여러 대명사들이 나타날 경우, 혹은 디폴트 상속된 대명사의 선행어에 대해 여러 가능성들이 존재할 경우 단순히 두 종류의 디폴트 상속장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Fiengo and May (1994)에서는 여러 유형의 구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소절에서는 각각의 유형들이 앞서 제시된 디폴트 상속이론에 의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는 선행문 내에 상이한 정도로 내포되어 있는 여러 대명사들이 생략문 내에서 일정한 패턴의 해석들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다음의 예문과 그 해석 가능성들을 살펴보자.

(25) *Max¹ said he₁ saw his₁ mother, and Oscar² did, too.*

(26) (a) *Oscar said Max saw Max's mother.*

(b) *Oscar said Oscar saw Oscar's mother.*

(c) *Oscar said Oscar saw Max's mother.*

(d) **Oscar said Max saw Oscar's mother.*

예문 (25)의 선행문은 내포문의 주어 명사구와 동사구내에 각기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략문에서의 그 대명사들은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가능성중에서 (a)-(c)의 세 가지 해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Fiengo and May (1994)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명사수 + 1) 개의 해석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깊이 내포된 대명사는 다른 대명사에 비해 엄밀한 해석을 받는다는 일반화를 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앞 절에서 제시한 전체적 디폴트 상속과 분석적 디폴트 상속의 조합가능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우선 (25) 예문에 대해 생략문 내에 가정할 수 있는 공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통사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27) (a) Max¹ [VP said he₁ saw his₁ mother] and Oscar did [VP e] too.

(b) Max¹ [V said][NP he_i][VP saw his₁ mother] and
Oscar did [V e][NP e][VP e] too.

(c) Max¹ [V said] [NP he_i] [V see] [NP his_j mother] and
Oscar did [V e][NP e][V e][NP e] too.

첫 번째 구조 (27a)는 생략문 내에 하나의 공범주 VP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전체적 디폴트 상속의 적용을 가능케 하여 각 대명사들이 엄밀한 해석을 받는 (26a)를 보여준다. 두 번째 구조 (27b)에서는 선행문의 VP범주가 다시 V, NP, 그리고 VP로의 분석가능성에 따라 생략문 내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공범주들이 가정된다. 이러한 통사구조의 설정은 두 대명사의 해석에 관하여 하나의 분석적,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전체적 디폴트 상속을 적용하게끔 해준다. 그 결과 (26c)와 같이 주어 명사구 *he*는 느슨한 해석을, 동사구내의 *his*는 엄밀한 해석을 받는다. 끝으로 세 번째 구조 (27c)에서는 내포절 내의 VP가 V와 NP로의 재분석가능성에 따라 생략문 내에 네 개의 공범주들이 가정된다. 이 경우 각각의 대명사에 관하여 분석적 디폴트 상속이 적용하게 되고, 그 디폴트 상속의 특성상 (26b)와 같은 해석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성과 같이 예문 (25)에 대해 단지 세 가지 종류의 통사구조밖에 설정할 수 없으며, 특히 (26d)의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통사구조의 설정가능성은 배제되어 있다.⁸

다수 대명사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Fiengo and May (1994)의 일반화에 어긋나 보이는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8) Edith¹ said that finding her₁ husband nude upsets her₁, and Martha did too.

Fiengo and May (1994)의 일반화에 따르면, 동사구내의 대명사 *her*는 주어에 내포된 대명사 *her*에 비해 엄밀한 해석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첫 번째 *her*는 엄밀한 해석을, 그리고 두 번째 *her*는 느슨한 해석을 지닌다.

(29) (a) Martha said that finding Edith's husband nude upsets Edith too.

(b) Martha said that finding Martha's husband nude upsets Martha too.

(c) *Martha said that finding Martha's husband nude upsets Edith too.

(d) Martha said that finding Edith's husband nude upsets Martha too.

8. 다음 예문들도 예문 (25)와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되어 대명사의 증의적 해석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예문 (iii)의 경우, 3 절에 제시된 생략 접속문의 해석원리는 생략문내 내포문으로의 디폴트 상속을 허용하여 종합적 디폴트 상속은 엄밀한 해석을, 분석적 디폴트 상속은 느슨한 해석을 가져온다.

(i) Max¹ said he₁ thinks he₁ saw his₁ mother, and Oscar did, too.

(ii) John¹ said Mary knew he₁ was unpopular, and Bill did too.

(iii) Max¹ saw his₁ mother, and Oscar said that Harry did, too.

예문 (28)의 구조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 가능성들은 Fiengo and May (1994)의 일반화에 대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 (28)에서 다음에 가정된 선행문의 여섯 가지 통사구조에 상응하여 생략문 내에 각기 동일한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⁹

- (30) (a) Edith [VP said that finding her₁ husband nude upsets her₁],
 (b) Edith [V said] [S_i that finding her₁ husband nude upsets her₁],
 (c) Edith [V said] that [S finding her₁ husband nude] [VP upsets her₁],
 (d) Edith [V said] [NP PRO][VP finding her₁ husband nude] [V upsets][NP her_i],
 (e) Edith [V said] [NP PRO][V finding][S her₁ husband nude]
 [V upsets][NP her_i],
 (f) Edith [V said] [NP PRO][V finding][NP her_i husband][AP nude]
 [V upsets][NP her_i]

대명사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의 (a)-(c) 구조는 대명사를 어휘로 갖는 NP범주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전체적 디폴트 상속에 의하여 엄밀한 해석, 즉 (29a)를 유도한다. 구조 (d)는 구조 (c)에서 출발하여 주어의 S범주와 동사구가 각각 NP+VP, 그리고 V+NP로 분석된다. 이 구조에서 주어내의 동사구는 소절(small clause)을 보속어로 취하고 있으므로 다시 구조 (e)로 분석될 수 있다. 두 구조 (d)(e)는 주어내의 대명사에 대해서 전체적 디폴트 상속의 효과를, 그리고 목적어 NP에 대해서는 분석적 디폴트 상속의 효과를 가져와 (29)(d)의 해석을 얻게 된다. 끝으로 구조 (f)의 소절은 다시금 NP+AP로의 재분석을 허용하여 각각의 대명사에 대해 분석적 디폴트 상속의 적용을 야기하여 (29b)에 제시된 느슨한 해석을 얻게 된다. 즉, 예문 (28)이 Fiengo and May (1994)의 일반화에 어긋나는 해석들을 받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그 통사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의한 것이고, 그 가능한 세 가지 해석들도 구조의 재분석과, 전체적, 그리고 분석적 디폴트 상속방식의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은 Fiengo and May (1994)에서 제시된 두 번째 유형으로서 하나의 선행문과 둘 이상의 생략문으로 구성된 문장들에서 대명사의 해석을 살펴보자. 먼저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담화상의 제약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앞서 살펴본 유형에서는 하나의 선행문과 하나의 생략문이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예들로서 3절에서 제시한 해석원리 (15)가 적용될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셋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담화상에서 나타나는 생략문과 관련된 유형에서는 해석원리를 단순히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디폴트 통합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스 문장과 목표 문장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다음의 예¹⁰에서 보듯이 전적으로 담화구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31) (a) Fred went to the dentist, because he was in terrible pain. Bill did, too.
 (b) John went to the library. He borrowed a book on computer science. Bill did too. He borrowed a book on French.
 (c) Maaike likes belly-dancing. She hates waltzing. Saskia does too.

예문 (a)에서 생략문은 내용상 ‘빌도 아프기 때문에 치과에 갔다’는 해석을 받는다. 담화구조 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종속 접속사에 의하여 하나의 담화단위를 형성

9. 본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통사구조 분석은 top-down 방향으로 진행된다. (29c)의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음의 통사구조는 깊이 내포된 소절이 주문장의 동사구보다 먼저 분석되었으므로 올바른 구조분석이라 할 수 없다.

Edith [V said][NP PRO][V finding][NP her_i husband][AP nude][VP upsets her₁]

10. Prüst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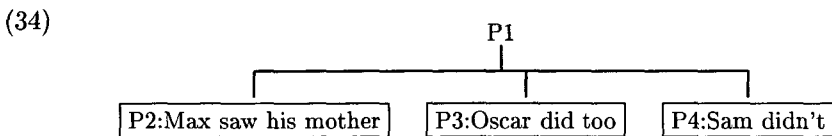
하고 있다. 이 담화에 세 번째 생략문이 대등적으로 결합되어 다시 하나의 상위 담화단위를 형성한다. 이런 담화구조를 고려한다면, 생략문의 해석을 위한 소스 문장단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위 단위에 해당한다. 예문 (b)의 생략문은 전체 내용상으로 ‘빌도 도서관에 갔다’는 해석을 갖는다. 담화구조상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들이 대등적 관계에 의해 형성한 담화단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으로 구성된 담화단위가 다시 하나의 상위 담화단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담화구조상에서 보면, 목표문장인 생략문의 소스 문장은 동형성(isomorphism)에 근거하여 첫 번째 문장에 부합한다. 마지막의 예 (c)는 두 가지의 해석, 즉 ‘사스키아도 벨리 춤을 좋아하나 왈츠는 싫어한다’는 해석과 ‘사스키아도 왈츠를 싫어한다’는 해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두 해석가능성도 두 종류의 담화구조 설정 가능성에 기인하고 있다. 부연하면, (a)과 같은 담화구조를 가정할 경우 우리는 전자의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반면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담화단위가 첫 번째 문장과 다시 상위의 담화단위를 형성할 경우 후자의 해석을 얻는다. 이상의 관찰을 토대로 하여, 해석원리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서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¹¹

- (32) 담화구조에서 생략문은 목표문이 되고, 그 소스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담화단위에 해당한다.
 - (i) 목표문보다 선행하고,
 - (ii) 목표문과 자매 관계에 놓여있거나, 또는 동형성을 이룬다.

다음은 이러한 담화구조상의 제약과 해석원리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대명사의 중의적 해석을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순수히 대등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 다음의 예를 설명하여 보자.

(33) Max¹ saw his₁ mother, Oscar did too, but Sam didn't.

위의 예문은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의 선행문과 두 개의 생략문이 서로 대등적으로 구성된 담화를 보여준다. 의미상으로는 두 개의 생략문이 동일한 방식으로 엄밀한 해석, 혹은 느슨한 해석을 받으며, 교차된 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예문 (33)에 대해 다음의 평행한 담화구조를 가정할 수 있다.



앞선 담화상의 제약에 따르면, 각각의 생략문 P3와 P4에 대하여 선행하며 자매 관계를 갖는 P2가 소스문이 되고, P2내의 VP는 해석원리에 의하여 디폴트 상속에 관련한다. 이 선행어 VP는 대등적 연결을 보여주는 담화구조로 인하여 각각의 생략문 해석에 있어서 동일한 디폴트 상속과 관련하게 된다. 디폴트 상속의 방식에 관해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두 종류가 선행문의 통사구조로 인하여 적용 가능하다.

- (35) (a) Oscar² did [VP see his₁ mother] &
 Sam³ didn't [VP see his₁ mother]
- (b) Oscar² did [V see] [NP his_i mother] &
 Sam³ didn't [V see] [NP his_i mother]

11. 이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Lee (1999) 6장 참고.

전체적 디폴트 상속의 적용모습을 보여주는 (a)의 구조하에서는 각각의 생략문이 엄밀한 해석을 받는다. 이와는 달리 (b)의 구조는 분석적 디폴트 상속의 적용을 받아 각각의 담화단위 내에서 각 대명사는 자신의 선행어를 찾아야 한다. 대등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 담화단위들은 상호간 평행한 의미해석을 받는 경향을 보이므로,¹² 이에 따라 각각의 대명사는 선행문의 해석과 평행하게 각 문장내의 주어와 공지사 관계를 갖게 되어 전체적으로 느슨한 해석을 받는다.

다음에는 종속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담화 내에서의 대명사 해석을 살펴보자. ‘Dahl의 문’으로 알려진 예문 (36a)는 원래 독일어 예문 (36b)에 근거하여 발견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37)에 제시된 세 가지 해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36) (a) Max¹ thinks he₁ is strong, Oscar² does too, but his₂ father doesn't.

(b) Karl sieht ein, daß er dumm ist, aber Peter nicht, obwohl sogar seine Frau das t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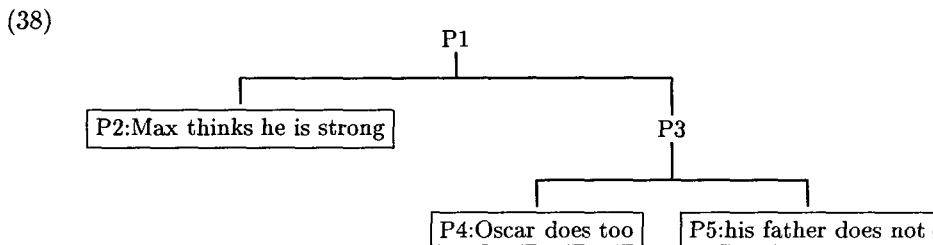
“Karl realizes that he is stupid, but Peter does not, although even his wife does es.”

(37) (a) ..., Oscar thinks Max is strong, but Oscar's father doesn't think Max is strong.

(b) ..., Oscar thinks Oscar is strong, but Oscar's father doesn't think Oscar's father is strong.

(c) ..., Oscar thinks Oscar is strong, but Oscar's father doesn't think Oscar is strong.

독일어 예문 (36b)에 비추어 예문 (36a)의 담화구조를 살펴보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표층적으로 등위 접속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종속적 관계를 나타내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담화단위는 다시 첫 번째 문장과 대등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다음의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먼저 담화상의 제약 (32)에 의하여 생략문들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담화 P3의 선행문은 P2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선행문은 다음의 두 통사구조를 지닌다.

12. 대등적 접속사에 의한 담화연결시, 선행문과 생략문이 평행한 의미해석을 갖는다는 점을 우리는 아래의 예문들에서 관찰할 수 있다.

(i) Three boys donated \$10, and two girls did, too.

(ii) John gave every student a test, and Bill did, too.

(i)의 예문은 선행문과 생략문이 동일하게 집단적 해석이나 배분적 해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해석들의 상호 교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ii)의 예문에서 두 양화구 *every student*와 *a test*는 두 절에서 평행한 양화영역을 배당 받는다.

- (39) (a) Max¹ [VP thinks he₁ is strong]
- (b) Max [V thinks][NP he_i][VP is strong]

첫 번째 구조 (39a)의 가정은 담화단위 P3으로의 전체적 디폴트 상속 적용을 유도하고, 모두 VP-생략문으로 이루어진 하위 담화단위들은 모범주의 VP값을 각각 자신의 공범주 내에 상속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전체적 디폴트 상속이 각 후속 담화단위들 P4와 P5에 적용되는 효과를 가져와 엄밀한 해석 (37a)를 얻어낼 수 있다. 반면에 NP에 관해 분석적 디폴트 상속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구조 (39b)에서는 그 대명사의 선행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맥에 따라 여러 해석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여러 가능성들 중 우리는 다음의 두 해석을 얻어낼 수 있다.

- (40) (a) Oscar² [V ...][NP he_{i=2}][VP ...],
 Oscar's father³ [V ...][NP he_{j=3}][VP ...]
- (b) Oscar² [V ...][NP he_{i=2}][VP ...],
 Oscar's father³ [V ...][NP he_{j=2}][V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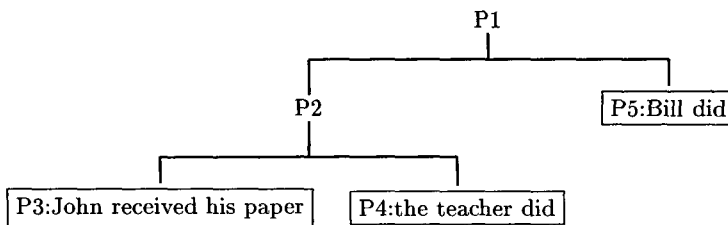
첫 번째 구조 (40a)는 디폴트 상속된 각각의 대명사가 자신의 담화단위 내에서 그 선행어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37b)의 느슨한 해석을 이끌어 낸다. 한편, 두 생략문이 종속적 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 담화단위간의 평행한 해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즉 대명사의 일반적인 해석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다양한 해석가능성들이 열려있다. 여기에서는 종속문인 세 번째 생략문에 나타나는 대명사는 자신의 선행어를 두 번째 생략문 내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구조 (40b)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37c)에 제시된 해석을 유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속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 담화에서 분석적 디폴트 상속에 의한 대명사는 그 선행어를 자신의 담화문 내에서 혹은 그 앞선 담화문 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관찰은 대등적 관계에 의해 구성된 담화 내에서의 대명사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가져다 준다.

또 다른 예로서 Gawron and Peters (1990)에서 제시된 이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예문 (41)을 보자. 여기서 나타나는 각 생략문은 보통 (42)에 제시되는 세 가지 해석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 (41) John¹ revised his₁ paper before the teacher² did, and Bill³ did too.
- (42) (a) [(1, 1) before (2, 1)] & [(3, 1) before (2, 1)]
- (b) [(1, 1) before (2, 2)] & [(3, 3) before (2, 2)]
- (c) [(1, 1) before (2, 1)] & [(3, 3) before (2, 3)]

이러한 해석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문 (41)의 담화구조를 설정하고, 담화구조상의 제약 (32)에 따라서 각각 소스문과 생략문을 결정해야 한다. 예문 (41)는 예문 (36a)와는 달리 어휘적으로 실현된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담화구조의 포착은 상대적으로 쉽다. 즉, 선행문은 첫 번째 생략문과 종속적 관계에 의해 하나의 담화를 형성하며, 이 담화는 다시 두 번째 생략문과 대등적 관계에 의해 결합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구조가 가정된다.

(43)



담화상의 제약 (32)에 의하여, 담화단위 P4의 소스문은 자매관계에 있는 P3이고, P5의 소스문은 자매관계에 있는 P2에 해당한다. 생략문 P5의 해석을 위해서는 소스문 P2가 완전한 문장에 해당하는 자질구조를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P2의 직접지배 단위들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생략문 P4의 해석을 위하여 해석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P3의 통사구조에 의거하여 두 종류의 디폴트 상속을 유발하는 다음의 두 구조를 P2에 가정 할 수 있다.

(44) (a) John¹ [VP [VP revise his₁ paper] before the teacher² [VP revised his₁ paper]]

(b) John¹ [VP [V revise][NP his_{i=1} paper] before the teacher² [V revised]
[NP his_j paper]]

엄밀한 해석을 갖는 P2의 첫 번째 구조 (44a)에서 보면 상위 VP 범주가 다시 전체적 디폴트 상속을 받아 P5에 나타난다. 그 결과 P5도 P2와 동일한 VP를 지니게 되어 (42a)의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분석적 디폴트 상속으로 인해 성립된 P2의 두 번째 구조 (44b)에서 보면, 생략문 P4에 나타나는 대명사 his는 두 담화단위 P3, P4간의 종속적 관계로 인해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을 지닌다.

(45) (a) John¹ [VP [V revise][NP his_{i=1} paper] before
the teacher² [V revised] [NP his_{j=1} paper]]

(b) John¹ [VP [V revise][NP his_{i=1} paper] before
the teacher² [V revised] [NP his_{j=2} paper]]

즉 종속관계의 담화구조에서 분석적 디폴트 상속에 의해 나타나는 대명사는 (45a)에서처럼 선행문 내의 명사구들, 또는 (45b)에서처럼 생략문 내의 명사구를 자기의 선행어로 취할 수 있다. 이러한 P2의 두 구조는 대등적 관계에 놓여 있는 P5내로 평행하게 상속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P2의 두 구조 (45)에 상응하여 P5에 대해 다음의 두 구조를 설정하게 된다.

(46) (a) Bill³ [VP [V revise][NP his_{i=3} paper] before
the teacher² [V revised] [NP his_{j=3} paper]]

(b) Bill³ [VP [V revise][NP his_{i=3} paper] before
the teacher² [V revised] [NP his_{j=2} paper]]

위의 두 구조는 (42)에 제시된 가능한 해석들 중 각기 (c)와 (b)를 보여 주고 있다.

5. 맺는 말

본 논문에서는 접속문에 나타나는 VP 생략현상을 관찰대상으로 하여, 생략문의 의미해석을 위한 디폴트 상속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은 통사층위와 담화층위에서의 작업구분을 전제로 하여, 통사층위에서는 기존의 HPSG 이론을 토대로 하여 *clause* 유형과 *nonclause* 유형이 나타나는 접속문의 통사구조가 파악되고, 이를 바탕으로 담화층위에서는 등접문들간의 위계구조상에서 작용하는 디폴트-통합 연산을 수용한 '생략 접속문의 해석원리'가 적용되어 생략문의 의미해석이 이루어진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VP-생략접속구문들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해석문제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이 각 구문들의 설명에 있어서 불충분함을 드러내는 반면에,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 디폴트 상속과 분석적 디폴트 상속이라는 두 종류 방식의 조합과 담화상의 제약을 통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VP 생략현상과 관련하여 양화영역의 중의성¹³과 '용기 변환'(vehicle

13. 주 4 참조.

change)현상들이¹⁴ 설명되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한 디폴트 상속 이론의 적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 Asher, N. 1993. *Reference to Abstract Objects in Discourse*.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 Carpenter, B. 1993. Skeptical and credulous default unification with applications to templates and inheritance. In A. Copestake T. Briscoe and V. d. Paiva, editors, *Inheritance, Defaults, and the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ages 13–37.
- Darlymple, M., S. M. Shieber & F. C. N. Pereira. 1991. Ellipsis and higher-order unific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4:399–452.
- Fiengo, R. and R. May. 1994. *Indices and Identity*. MIT Press, Cambridge, Mass.
- Gawron, M. and S. Peters. 1990. *Anaphora and Quantification in Situation Semantics*. CSLI/ Uni. of Chicago Press, Stanford.
- Lappin, S. 1996. The interpretation of ellipsis. In S. Lappin, editor,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lackwell, Oxford, pages 145–175.
- Lee, H.-Y. 1999. *Ellipsen in Satzkoordinationen*. Peter Lang., Frankfurt a. M.
- Levelt, W. 1983. Monitoring and self-repair in speech. *Cognition*, 14:41–104.
- Pollard, C. and I.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SLI/ Uni. of Chicago Press, Stanford.
- Prüst, H. et. al. 1994. Discourse grammar and verb phrase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pages 261–327.
- Sag, I. A. 1976. *Deletion and Logical Form*. MIT, Dissertation.
- Sag, I. A. 1997.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Journal of Linguistics*, 33(2):431–484.
- Williams, E. 1977. Discourse and logical form. *Linguistic Inquiry*, 8:101–139.

접수일자: 1999년 5월 28일

게재결정: 1999년 6월 29일

14. 아래의 예에서 생략문 내에서 해석되는 동사구는 *see anyone*이 아니라, *see someone*이 가정되어 선행문에서와 다른 형태를 지닌다.

(i) John doesn't see anyone, but Bill does.